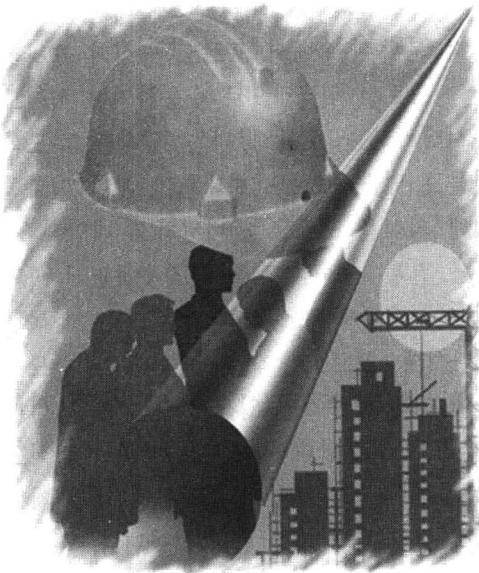


이 내용은 일본 「노동위생」지에
게재된 노동위생활동에 관한
Q&A를 번역한 것입니다.
산업보건관계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재해를 방지하려면



Q 얼마전 종업원이 사무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 골절 부상을 당하는 재해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요?

A 「추락이나 전락」에 의한 재해 중 계단이나 사다리 등에 기인한 재해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에서의 전락 사고는 「양손에 짐을 들어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균형을 잃었다」, 「겨울철 눈이 내려 동결된 계단에서 미끌어졌다」, 「전차를 타려고 서둘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직장에 계단이 있고,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의 전락에 의한 피해는 의외로 중증이 많으며, 휴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올라가는 경우보다 내려올 때, 서두를 때의 전락이 많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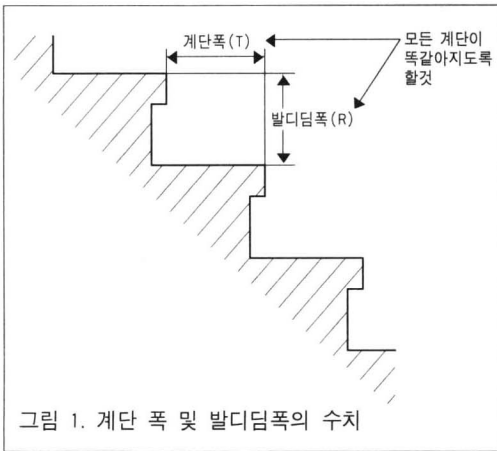
사람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의식을 별로 갖지 않기 때문에 계단 자체에 대한 안전화가 대책으로 중요합니다.

계단의 점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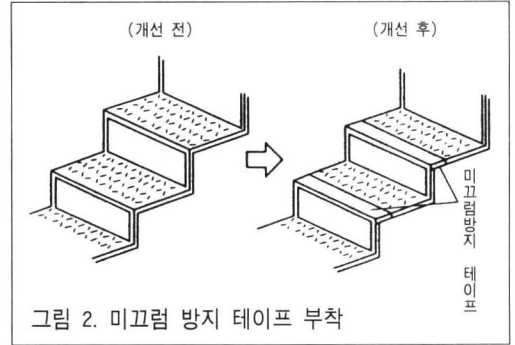
계단을 여유와 안심감을 가지고 오르내릴 수 있는 크기와 넓이를 확보합니다. 계단 폭, 발디딤 높이의 수치는 오르내릴 때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노면은 잘 미끌어지지 않는

재질을 이용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계단의 안전조건은 다음의 것들을 참고로 해서 직장내의 계단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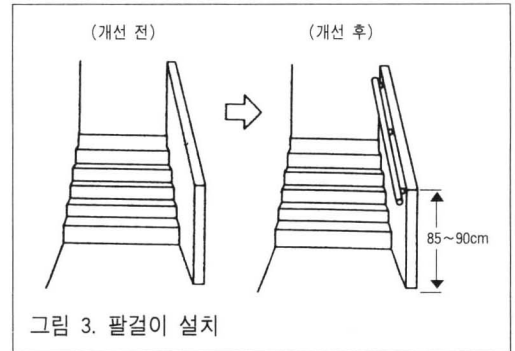
- ① 경사는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좋다.
- ② 발디딤 높이, 계단면의 수치가 어떤 한 부분만이 다르게 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한다.



- ③ 발올림, 계단면의 수치 관계는 그림을 참고한다.
- ④ 오르내림의 부담을 가볍게 하고, 전도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통로를 설치한다.
- ⑤ 계단 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좋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설치할 경우는 너무 길어서 발에 걸리지 않도록 부착한다.



- ⑥ 팔 지지대는 양면에, 최소한 한쪽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높이는 계단 아래 끝부터 85~90cm가 적당하다.



- ⑦ 계단이나 통로에 물건을 방치해 두지 않는다.
- ⑧ 청소와 점검들을 수시로 하고, 물, 기름, 모래 등이 계단 위에 흩어져 있지 않도록 관리한다.
- ⑨ 조명이 어두운 것은 위험하다. 75룩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